

갈등의 시대, 해법을 논하다

'부디스트 크리스찬' 폴 니터 & '한국의 고승' 진제 대선사

"일부 비뚤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교인을 향해 함께 미워하지 말고 불교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폴 니터 교수) "불교는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무슨 투쟁이 있고 반목이 있었습니까?"(진제 대선사)

“모든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평화위해 심심할 때”

이심전심(以心傳心)이며, 엄화미소(結華微笑)였다. 한국 선(禪) 불교의 법맥을 잇는 큰스님이 알 듯 모를 듯한 흥분을 얘기하면 푸른 눈의 세계적인 신학자는 구체적인 각론으로 응답했다. 통역을 가운데 두고 선문답처럼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현실적 의제에 대한 공감의 폭과 깊이는 무르익어만 갔다. 언뜻 낯설어 보이는 만남과 대화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갈등이 증폭되는 시대에 적지 않은 울림을 줬다.

2010년이 저물어가는 31일 오후 대구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은 전날 내린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다. 동화사 들머리 앞쪽에 내걸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과 사찰 경내에 걸린 '불교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종교 갈등, 사회 갈등이 심상치않은 시기임을 직격한다.

●“기독교·불자간 갈등 유감스러워”

조계종의 대표 선승인 진제 대선사와 세계적인 종교신학자인 폴 니터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불교, 기독교 사이의 경계와 벽을 허물고 나눈 대화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기도 한다. 종교 간 갈등, '4대강 개발 논란' 갈등 등 사회 전반에 반목의 골이 깊어지



선은 신앙아닌 수행법 불교에선 자아완성 중요 '참나' 발견해야



고 있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동화사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른바 '동화사 땅밧기'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이는 등 한국 사회 내 종교 간 갈등의 첨예한 현장 중 한 곳이었기에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의 효과도 큰 법이다.

니터 교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최근 한국 사회의 군사적, 종교적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니터 교수는 "현재 남북 사이에 커다란 군사적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와 불자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봉은사와 동화사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이들은 전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도 생각하고 내가 대신 사죄한다."고 말했다. 진제 대선사는 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니터 교수가 구만리 정도에 오셔서 한국을 염려해주시니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면서 "모든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라고 화답했다.

니터 교수는 단순한 사과의 뜻을 넘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예들러가지 않았다. 그는 "이웃은 물론 적까지 사랑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들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는 예수님의 복음과 어긋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예수님의 근본적 가르침인 정의, 평화, 사랑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자신의 다원주의적 종교관의 핵심을 피력했다.

두 영적 지도자들은 굳이 수다스럽게 자기 의견을 내놓을 것도, 서로 상대방 의견에 애써 동의할 것도 없었다. 많은 말을 섞지 않았음에도 종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상통했다. 71세, 76세 두 원로의 대화는 두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흥분한 말 한마디도 그칠 줄 몰랐다. 서로에 대한 인간적 궁금함도 묻고 답해졌다.

"저는 로마 가톨릭이예요. 어릴 적 사제가 됐다가 30세에 사회로 돌아왔죠. 유일 진리를 얘기하는 그리스도교인에도 다원주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20대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마틴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니다.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의 가톨릭 주교들이 모였고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의견들이 오고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배우는 것은 기회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니터 교수는 진제 대선사를 부를 때마다 꼬박꼬박 서툰 우리말로



대구 동화동 동화사에서 31일 열린 '생과 화합을 위한 종교 간의 대화'에 참가한 폴 니터(왼쪽) 미 유니온 신학교 교수와 동화사 조실 스님인 진제 대선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구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큰스님'이라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 은둔 수행승인 진제 대선사는 10여분가량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니터 교수는 눈을 반짝거리며 듣다가 하나의 화두를 붙들고 2년 반 동안 수행한 뒤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진제 대선사는 "분별없는 참된 나, 즉 인간 본연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 청정무구의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는 방법으로서 선 수행이 중요하다."면서 "선은 불교 전통으로 이어오는 것이지만 신앙의 대상이 아닌 만큼 종교를 떠나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상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작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제 대선사가 "우리는 자아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나를 발견하라는 간화선을 던지는 것"이라면 서 "내 눈이 어두운데 증생을 안락국토로 인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명상 수행 동안에도 고통받는 사람 있음을 생각해야”

하지만 니터 교수는 "내가 지금 명상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지구에는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 전쟁과 폭력, 고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진제 대선사와 생각이 다름을 내비쳤다. 니터 교수는 함께 방문한 그의 부인 캐서린 코넬과 함께 서구사회에서 보기드물게 '그리스도-불자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1980년대부터 전쟁과 기아, 고통이 있는 곳에서 사회운동을 해온 탓이다.

그 또한 세계적 권위의 가톨릭 신학자이면서도 오랫동안 불교 선(禪) 수행을 해왔고, 최근에는 달라리 라마로부터 티베트불교 전통에

동화사 땅밧기 내가 사죄

불교식 수행이 내 신앙 더 성숙시켜



따라 '연꽃 치유사'(Lotus Healer)라는 별명과 함께 수계도 받았다. 공식적으로 '불자-그리스도인'이 된 셈이다. '부처님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그의 최근 저서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종교계에 큰 화제를 몰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진제 대선사는 대답을 마친 뒤 니터 교수에게 '진아(眞我)라는 법명과 함께 직접 쓴 '처처주주(處處住住) 어디에 머무르건 참나를 찾아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 편액을 선물하며 이미 충분히 가까워진 종교 간의 거리를 더욱 좁혔다. 니터 교수는 "불교식 선 수행이 나의 기독교 신앙을 더욱 성숙시켰다."면서 "나는 이제 71세인데 큰스님처럼 수년 동안 화두 붙들고 수행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라고 기쁨과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이날 두 정신적 지도자의 만남은 초조대장경(初祖大藏經) 고려 최초의 대장경) 제작 1000년인 2011년을 맞아 특별히 성사된 '밀레니엄 평화 대담'이다. 외세 침략 앞에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종교적 염원이라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장경을 조성했던 정신을 기린다는 의미다.

●종교초월 사회 통합위한 '야단법석'

진제 대선사와 니터 교수의 대담 이후에는 동화사 수좌 스님들을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 불자와 기독교 단체가 니터 교수와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펼쳤다. '불교-기독교 간 수행 전통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주제로 한바탕 깊은 얘기를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이번 대화는 종교의 벽을 넘어 21세기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종교를 초월하여 사회 통합과 평화를 이뤄내자는 불교계의 간절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1일 동화사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5일까지 부산 해운정사, 부산 범어사, 서울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을 잇는 전국 순회 평화 토크를 가진 뒤 6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대구 박복삼기자 youngtan@seoul.co.kr

●폴 니터

1939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1966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과정을 이수, 목사가 됐으며 1972년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달라리 라마, 데스몬드 투투 등과 함께 평화평의회국제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무슬림과 힌두, 불교 신도들과의 심층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다원주의적 종교신학의 정점에 서 있는 그는 교회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신 중심주의로, 해방의 실천을 통한 구원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를 돌며 마음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대해 실패하는 인기 강연자이다.

●진제 대선사

1934년 남해에서 태어났다. 1954년 해인사로 출가해 전국 선원에서 수행했으며, 향공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받았다. 경허-해월-운봉-향곡으로 이어지는 한국 선불교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사찰의 최고 어른)과 동화사 조실이다. 선객들 사이에서 '복송담, 남진제'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인천 용화사의 송담스님과 더불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정신적 지도자로 꼽힌다. 1971년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했다. 선학원 이사장, 문경 봉암사 조실을 거쳤고 1998년과 2000년 백암사 1·2차 무차선대법회 초청법주,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 법주에도 몸담았다.